

# 마브 윌슨 박사, 선지자, 세션 21, 하박국

© 2024 마브 윌슨과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하박국서 21장입니다.

좋습니다.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자. 이번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버지,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우리는 질문이 있는 곳에 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유리를 통해 어둡게 본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우리가 당혹스러운 질문에 대해 부분적인 답을 얻을 때에도 궁극적으로 우리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박국의 메시지를 묵상하면서 당신의 추종자로서 우리가 그 길을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 작은 책에서 나오는 지속적이고 영원한 주제 중 일부를 파악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은 다음 주 수요일에 우리가 함께 종교간 유월절을 갖는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수업이나 두 수업에서 그 교통 수단을 연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주제는 내가 신정론이라고 말한 하박국입니다. 신정론은 혼합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 정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을 옹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며 어떤 식으로든 악과 연관되지 않으신다고 선언하는 곳에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하박국은 당황하여 하나님과의 대화에 들어갑니다. 1장과 2장은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에 대한 질문과 대답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이나 불만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때때로 철학자 예언자로 알려진 이유입니다. 성경에는 철학자가 나오지 않지만, 때때로 성경은 철학자에게도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제3장에서는 하나님의 불평에 대해 몇 차례 왕복하며 하나님이 그의 불평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면, 그 제3장에서 우리는 더 큰 차원에서 하나님의 장엄한 신현 현현을 보게 됩니다. -생명보다 용어. 논쟁이 끝나면 이 두 라운드 논쟁에서 하박국이 결국 얻는 것은 신정론에 대한 합리적인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이제 이 책의 배경에 대해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이 책은 요시야의 통치 말기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남쪽 왕국이 멸망되기 15년, 어쩌면 20년 전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힘의 균형이 이미 변한 것 같습니다.

기억하세요, 612년은 구약 역사에서 중요합니다. 그날은 니네베가 무너지는 날이다. 그리고 그 후, 이제 바빌론은 고대 근동 지역의 운전석에 완전히 자리잡았고 곧 다가올 새로운 위협이 되었습니다.

하박국이 자신을 당혹스럽게 하는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갈대아인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때 누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박국서의 마지막 장에서 일부 학자들은 그것이 하박국서의 원래 부분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입니다.

공적 예배에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음악 지침인 시기 오노스(Shigionoth)에 관한 3장의 전례 표기법과 물론 번역되지 않은 세 실라의 반복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일종의 음악적 방향.

아마도 막간을 위해 음악이 들어올 수 있고 독자가 이전 대사에 대해 숙고하고 생각하기 위해 잠시 멈출 수도 있습니다. 실라(Sila)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아마도 사원 음악가들에게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일종의 음악적 일시 정지를 포함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외경을 매일 읽지는 않습니다.

이 책은 확실히 가톨릭 성경의 일부이지만 기독교 성경의 일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1800년대 초까지 대부분의 영어 성경 사본에 외경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놀랄 것입니다. 외경이 RSV, NIV,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번역본, ESV 등에서 제거되었다는 사실은 비교적 현대적인 것입니다.

내가 외경을 언급하는 이유는 외경에 있는 종과 용이라는 작은 책이 하박국을 언급하기 때문입니다. 벨과 드래곤에서 흥미로운 문단을 읽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의 이야기이고 외경 저작물에는 매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33-39절에 보면, “이제 선지자 하박국이 유대에 있을 때에 그가 국을 요리하고 떡을 문쳐 그릇에 담아 추수꾼들에게 갖다 주러 들에 나갈새 여호와의 사자가 하박국에게 이르시되”라고 했습니다. , 네가 가지고 있는 음식을 바빌론으로 가져가서 사자 굴에 있는 다니엘에게로 가져가라. 하박국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나는 바벨론을 본 적도 없고 그 굴도 알지 못하노라 그러자 주님의 천사가 그의 정수리를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미 고양이가 그물 뒤에서 새끼 고양이를 붙잡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의 정수리를 붙잡고 그의 머리털을 잡고 바람의 속도로 바벨론 굴 바로 위에 내려 놓으니라. 그리고 하박국은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만찬을 받아라”라고 소리쳤다. 다니엘이 이르되 하나님께서 내가 주를 기억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다니엘이 일어나서 먹었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즉시 하박국을 자기 자리로 돌려보내니라. 그것은 아주 흥미로운 작은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개신교인들은 그것이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묵시적입니다. 성경에는 그 사건에 대한 언급이 없지만 외경에는 매우 흥미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아마도 612년 직후에 쓰여졌을 것입니다. 칼데아인들이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었고, 제 생각에는 612년이나 612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유다 백성에 대한 염려를 생각합니다. 예레미야는 627년부터 포로생활을 경고했기 때문에 예레미야와 하박국은 동시대인이었을 것이다.

칼데아인들이 지은 특정한 죄들의 목록이 있습니다. 칼데아인과 바벨론인은 칼데아인의 죄와 동의어이다. 그리고 그 목록은 2장의 다섯 가지 화 아래에서 발견됩니다.

훔친 물건을 쌓아 두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부당한 이익으로 자기 나라를 건설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피를 흘리며 성읍을 건설하는 그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웃에게 술을 주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나무더러 살아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즉, 우상숭배입니다.

2장에 나오는 이 다섯 가지 화는 제국과 부, 웅장함, 그리고 우상 숭배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악덕에 대한 욕망을 품은 바벨론 국가에 대해 언급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의 마지막 장은 오순절 기간에 회당에서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오순절은 오순절이고, 유월절 이후 7주 후에는 예루살렘 성전 순례가 이루어진 유대인의 세 가지 주요 명절 중 두 번째 날입니다.

3장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그것을 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땅을 두루 다니시며 자신을 드러내시는 이 강력한 하나님에 대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이 시편에 있는 이유는 하박국서 3장이 예를 들어 신탁과 같은 전형적인 예언 자료보다 구성 방식에 있어서 시편에 더 가깝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장은 우연히 하박국 주석이라고 불리는 사해 두루마리 자료에 빠져 있습니다. 현재 사해사본이 보관되어 있는 쿨란에는 다양한 종류의 자료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쿨란에서 발견된 성경책을 생각하는데, 확실히 성경책은 아주 많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시편, 이사야서는 여러 사본이라는 점에서 더 중요합니다. 콤란에는 성경 사본 외에 다른 작품도 발견됩니다. 물론 에스더서를 제외한 모든 책의 전체 또는 단편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사해 두루마리에는 다른 문서가 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출처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종파적인 다른 문서도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두루마리, 징계 매뉴얼, 때로는 공동체의 규칙이라고도 불립니다. 아마도 로마와 맞서 최후의 대전투를 벌이게 된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기록한 전쟁 두루마리. 그러나 콤란에는 또 다른 장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박국 주석이다.

다른 주석들도 있는데, 하박국 주석은 히브리어 성경에 대한 최초의 주석 중 하나의 예를 보여줍니다. 하박국 주석서는 실제로 하박국서 3장을 생략하고 있지만, 학자들이 미드라쉬 페셰르(Midrash Peshar)라고 부르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Midrash Peshar는 히브리어 본문에 대한 해석적 주석을 의미합니다.

페셰르(Peshar)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설명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Midrash는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 적용, 때로는 격언 또는 설명과 같은 이야기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그럼, 미드라쉬 페셔.

처음 두 장의 하박국 주석은 미드라쉬 페셰르(Midrash Peshar) 또는 해석적 주석으로 알려진 일종의 주석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설정한 방식은 예수님 시대 이전의 주석의 한 예입니다. 먼저 그 구절을 인용해 보세요.

그래서 하박국 주석을 펼치면 그 구절이 인용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이것의 페셰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은 Peshar입니다. 그리고 나서 흥미롭게도 하박국의 설명을 그 특정한 날의 현재 문제에 적용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시의 세계에서 그들을 둘러보고자 했고, 그 설명은 그들 주변의 로마인들과 그 직접적인 세계와 관련하여 자주 발견되었다. 자, 이제 하박국서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박국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책이다.

먼저 1장 1-4절에는 하박국의 첫 번째 불평이나 질문이 나옵니다. 1-4절에서 선지자는 수사학적 질문을 사용하여 하나님께 “하나님, 왜 폭력을 허용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왜 이 모든 악이 계속되고 처벌받지 않도록 허용하십니까? 그래서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언제까지 도움을 구해야 합니까?”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듣지도 않고 내가 너희에게 폭력을 행사하라고 부르짖어도 너희는 구원하지도 구원하지도 아니하느니라. 왜 나에게 불의를 보게 합니까? 왜 당신은 잘못과 파괴와 폭력을 용납하십니까? 그들이 항상 내 앞에 있고 다툼과 다툼이 심하며 법이 완전히 마비된 것 같으니이다.

즉, 하나님의 통치는 죽은 문제였습니다. 불의는 최고 입찰자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변태적이다.

그래서 이것이 선지자의 불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벌을 내리겠다고 대답하십니다. 여기 본문을 읽으면 알 수 있듯이 그가 찾고 있던 대답은 아니지만 1장의 나머지 부분, 특히 11절까지, 5-11절에서 대답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 유다를 벌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을 보면 5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시대에 너희가 믿지 못할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 다음 구절에서 용감하고 무서운 백성으로 묘사되는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키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이리보다 사나우며 기병도 있고 들어오고 또 사나우며 폭력을 행사합니다(9절). 그리고 그들은 한 줌의 모래를 취하는 것처럼 포로들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것입니까? 그들은 요새화된 도시를 비웃습니다. 여기에 성경 고고학 연구에 관한 짧은 문구가 있습니다.

그들은 흙으로 경사면을 세웁니다(10절). 이것은 우리에게 공성전을 연상시킵니다. 사람들이 공성추를 거기에 올리기 위해 성벽까지 올라가는 경사로로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생각나게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에스겔은 도시의 특정 취약한 부분에 배치된 이러한 포위 경사로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좋습니다. 이들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또 다른 질문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는 유다가 바벨론 사람들보다 덜 악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이런 특별한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사실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바벨론 사람들보다 더 사악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의 두 번째 불만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찌하여 당신은 당신의 계약 백성을 치려고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이용하시며, 덜 악한 자를 처벌하기 위해 더 악한 자를 이용하시렵니까? 그건 말이 안 돼요. 그래서 그는 1장의 나머지 부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처벌하도록 허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불만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그는 12절에서 그를 거룩한 자로 묘사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이사야에 이르면 그 흥미로운 표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에 대한 핵심적이고 다소 독특한 표현 중 하나입니다. 하박국은 여기서 거룩한 것을 사용합니다. 심판을 집행하도록 그들을 임명하셨다고요? 당신은 그들을 처벌하도록 명령했습니까? 하박국은 이 말에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13절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주의 눈은 너무 정결하여 악을 보지 못하시느니라. 당신은 잘못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즉,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정의로운 신이십니다. 그런데 왜 배신자들을 용납하십니까? 바로 바빌로니아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 어찌하여 잠잠하시나이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잔인하고 야만적인 나라를 어떻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물론, 당신은 그 나라의 이력서를 원합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다섯 가지 화로 가서 그 화들이 어떻게 점심을 먹는지 알려 줍니다. 이념적으로도 그는 나쁜 행동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들어올 것이고 마치 그물이나 끌어당기는 그물처럼 많은 수의 물고기를 모을 것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물고기와 큰 숫자처럼 당신의 백성을 낚아챌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내내 웃고 기뻐할 것입니다(15절). 우리의 몰락을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계속해서 그물을 비워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무자비하게 멸망시킬 것입니다. 자비가 없는 그 흥미로운 표현은 자비입니다. 물론 제가 고든 학생들에게 시험을 앞두고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은 하박국 3장 2절입니다. 진노 중에도 자비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실제로 자비가 일어나는 곳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1장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무자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이 부르심은 그분의 백성을 기억하고, 앞으로 어려운 시기를 직면해야 하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위해 자비를 베푸라는 것입니다. 이제 선지자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함으로써 이 두 번째 불평을 끝냅니다. 당신은 덜 악한 자를 다루기 위해 더 악한 자를 이용할 것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벽 위에 서서 파수꾼처럼 서서 이사야의 랍사게처럼 밖을 내다보며 일종의 도전에 대한 반응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그래서 2:1은 두 번째 불평을 끝내며, 내가 가진 두 번째 불평에 대한 대답을 기다리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2장 2절로 시작하여 두 번째 불평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다시 오십니까? 이 작은 부분에서 성경 해석의 전체 역사에서 한 구절에 대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성찰이 나왔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기독교 해석가들과 같은 랍비들은 항상 성경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하나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무엇으로 귀결되나요? 예수님 당시의 두 가지 주요 해석 학파는 힐렐과 샴마이였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도전 과제는 토라에 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한 발로 요약할 수 있습니까? 물론 매우 엄격하고 매우 세밀하고 매우 할라키적인 샴마이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힐렐이 이교도로부터 질문을 받았을 때, 유대교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한 발로 요약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해로운 일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는 답을 주었습니다. 성경의 다른 모든 내용은 그 하나의 주제에 대한 주석입니다.

소위 황금률의 한 버전으로,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십시오. 이는 자비와 연민에 대한 질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물론 힐렐은 토론에서 때때로 등장하는 샴마이의 다소 엄격하고 엄격하며 비판적인 방식에 비해 훨씬 더 동정심 많고 어찌면 자비롭고 친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탈무드에는 힐렐의 제자들과 샴마이의 제자들 사이에 316번의 논쟁이 있습니다.

심라이 (Simlai) 가 있었는데, 그는 성경의 처음 다섯 권의 계명을 최초로 계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Taryag 의 법칙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유대백과사전에서 TARYAG를 찾아보면 4개의 히브리어 문자가 포함되어 있고 각 히브리어 문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얻으면 613이라는 약어가 나옵니다.

타라 그의 법칙, 613개의 계명, 365개의 부정적인 계명, 일년 중 매일 하나씩, 랍비 심라이가 발견한 248개의 긍정적인 계명. 그러나 Rabbi Simlai는 이 모든 것을 요약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모든 것을 말해 주는 계명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까? 흥미롭습니다. 그는 다양한 구성과 축소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가 내놓은 것은 하박국 2장 4절이 히브리어 성경의 결론이다. 의로운 사람, 의로운 사람, 즉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는 사람은 신실하게 살 것입니다. 즉 그는 끈기와 꾸준함을 갖고 살고, 확고부동한 결단력으로 그 자리에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기 유대인의 생각에도 성경에 한 구절이 있다면 이 구절은 토라가 아니라 하박국에서 나오는 것이지만 모든 사람이 실제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요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세상의 다른 모든 정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의 모든 힘든 시간과 문제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거기에 매달려 충실하게 당신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마틴 루터는 이 동일한 본문을 선택했고 이것이 종교개혁의 전투 외침이 되었습니다.

신약성서에서 이 표현이 하박국 2장 4절에서 따와 신학적으로 약간 수정된 표현이 세 번이나 있기 때문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 성경에서 하박국의

불평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여기의 원래 문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대답은 계시를 기록하고 판에 명백하게 하여 전령이 이를 가지고 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계시에는 정한 때가 있으니 종말을 가리킨다.

그것은 거짓으로 판명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리하면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임하리라. 뭘 기다리는거야? 글썄요, 여기의 문맥에 따르면 그것은 바빌론의 멸망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백성은 와서 남쪽 왕국에 슬픔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의 문맥에서 바빌론 자체가 그 날을 맞이할 것이기 때문에 그가 비록 그것이 느리더라도 기다리라, 우리가 이것을 볼 때 539를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이 나에게 보인다. 539년에 키루스 대왕이 등장하면서 바빌론 국가를 무너뜨릴 페르시아를 기다리십시오. 4절에 보면 이 유명한 말씀이 나오기 전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의인은 그의 신실함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보라, 보라, 그가 교만하고 그의 욕망이 정직하지 못하다고 말한다.

이것은 아마도 바빌론 왕을 의인화한 것 같습니다. 그는 모두 우쭐대고 그의 욕망이 좋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 그는 교만하여 쉬지 아니하며 탐욕이 음부 같으니 그가 모든 나라를 모아 자기에게로 모으며 모든 백성을 사로잡으니 모든 사람이 그를 비웃고 멸시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문맥상 이 사람은 모두 교만으로 우쭐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과 그의 교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마도 바빌로니아 사람들을 위한 집단일 것입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페르시아는 이 교만한 자를 무너뜨릴 것이며 갈대아나 바벨론도 바벨론 왕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죄. 자, 여기에 대조가 있습니다. 이것의 원래 맥락은 당신 주변의 세계가 무너져도, 외국 군대가 쳐들어오더라도, 정치적 박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매일의 삶을 영위하겠다는 신실하고 꾸준하며 확고한 결심을 말한다. 그것이 당신이 기능하는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보안을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 덕 있는 사람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임박한 운명에서 살아남는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음악 소리? 나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대사를 듣는다.

그리고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는 일종의 메시지입니다. 일상의 일을 수행하는 것은 삶보다 더 나은 주님의 능력으로 확신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사는 방식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 구절을 인용하는 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맥에 맞지 않게 인용한 걸까요? 글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른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성서의 작가들은 종종 약간 다른 신학적 해석을 사용하거나 특정 구약성경 본문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영웅이었습니다. 창세기 15:6. 그리고 그것이 그에게 의로운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로마서 초반부에서 아브라함을 그토록 많이 언급하는데, 그것이 바울의 방식입니까?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로운 행위가 아닌 경건함을 강조했습니다. 또는 우리가 믿음의 복음서인 요한의 복음서인 피스투오(Pisteuo)에서 알고 있듯이,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물론 하박국서의 맥락에서는 그 어떤 것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즉각적인 맥락에서 행함과 믿음의 대조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도 우리가 기독교 교회의 신학적 언어로 아는 바가 아닙니다. 여기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기 작가에게 에무나라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단어이다.

랍비들은 이 단어가 출애굽기 17장에서 처음 사용되었기 때문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아말렉 사람들의 맥락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가는 길에 시내산 반도를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아말렉 사람들을 쳐부수면서 첫 번째 군사 경험을 얻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언덕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은 피곤해서 한쪽 팔을 들고 있었고 그녀는 다른 쪽 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은 모세의 팔이 해가 질 때까지 에무나라를 유지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번역되나요? 사용 중인 버전에 따라 확고하거나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아멘은 이 어근에서 나온 것입니다. 당신이 아멘이라고 말할 때, 당신은 내가 그것을 확언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건 견고하고, 꾸준하고,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증발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분의 뜻에 따라 살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는 의인은 확고함이나 불변성, 계시에 대한 흔들리지 않는 충성으로 살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져도 당신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당신의 삶에 견고함을 줍니다. 믿음은 편재성에 대한 살아있는 의식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견고함, 내면의 견고함을 주는 견고함입니다.

보세요, 제 생각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모든 것이 관참을 것이라는 일종의 폴리어나 버전과 같은 기독교 구역에서 판매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실제로 약속하는 것은 내면의 견고함, 내면의 평화, 내면의 힘, 영혼의 꾸준함과 꾸준함입니다. 이에 대한 바울의 해석은 실제로 빌립보서인 그의 기쁨의 서신을

보면 그가 그 작은 서신에서 약 12번 기뻐하라고 말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옥중서신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풀려날 희망이 거의 없었으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외적인 상황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스토아주의는 바울의 대답이 아니었지만, 스토아학파는 바울보다 몇 세기 전에 존재해 왔습니다. 웃으면서 참는 것이 아니라, 은혜롭게 입는 것입니다. Paul은 자신이 갖고 있던 내부의 또 다른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빌립보서 4장 13절을 번역하면 나는 내 안에 사시는 분의 능력을 통해 모든 상황에 맞설 힘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이 구절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이 구절이 나타나는 다른 부분에 대한 암시를 줍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서 10:35-39의 다른 부분에서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리하면 풍성한 상을 받으리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해야 합니다. 조금 있으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예수의 재림을 암시하는 것 같으니라.

그러나 나의 의인은 믿는 자들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들이니 나의 의인은 그가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리라. 만일 그가 뒤로 물러가면 나는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무나의 뒷면은 움츠러들고, 녹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무나는 어려운 시기에 그 자리에 버틸 수 있는 영혼의 자신감입니다. 2장은 그가 이 바벨론 제국, 다섯 가지 화의 도시의 악을 처리한 후에 매혹적인 결말을 맺습니다.

나는 그가 여기에 나열한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모든 악덕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특히 18-20절에 대해 논평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아브라함 조슈아 헤셀(Abraham Joshua Heschel)이 말했듯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진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박국이 하는 일은 예언적 장르의 전형적인 예레미야와 다른 선지자들에 의해 여러 곳에서 이루어지며, 그 당시 세상의 경쟁하는 신들이 살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의 우상 숭배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살아 계셨기 때문에 참되고 참된 계시를 주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사람이 조각한 우상은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거짓말을 가르치는 이미지. 그것을 만드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것을 신뢰합니다. 그는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듭니다.

나무더러 살아나라, 생명없는 돌더러 깨어나라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진저. 지침을 줄 수 있나요? 수사적 질문. 당연히 아니지.

금과 은으로 덮여 있지만 그 안에는 호흡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상에 대한 암시는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주님은 그분의 거룩한 성전에 계십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위대한 주식 중개인으로 추정되는 EF Hutton이 무너지기 전, 아마도 10년 전, 그들은 TV에서 최고의 광고 중 하나를 내보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EF Hutton이 말하면 모두가 듣습니다.

마치 골프 시합이 진행되고 있는 그린 주변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인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누군가가 입을 열었고 그것은 조용하고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EF Hutton이 말하면 모두가 듣습니다.

이 생각은 거룩한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땅을 잠잠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계시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계시를 주십니다.

POD의 표현대로 그는 살아있습니다. 이 책의 절정이자 이 책의 결론은 그가 생명보다 더 크신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제시한 이후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전의 계시를 끌어내거나 암시합니다.

오시는 하나님이 주제입니다. 3:3에서. 유다 남쪽에 있던 T-man에게서 나온 신입니다. 이 거룩한 분이 가데스 바네아 남쪽에 있는 바란 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가데스바네아는 무엇이었는가? 성경에서 그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곳은 광야의 주요 진영이 되었으며 열두 명의 정탐꾼이 그곳에서 파견되어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약 38년 동안 진을 쳤던 곳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가족 중 한 사람이 묻힌 곳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바로 근처에 바란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광으로 하늘을 덮으셨습니다.

그분의 찬양이 땅에 가득합니다. 그의 영광은 일출과 같습니다. 그의 손에서 광선이 번쩍인다.

그는 서서 땅을 흔들었습니다. 그가 보시고 나라들을 떨게 하셨느니라. 마치 실물보다 더 거대하고 거대한 이 인물이 지구 전체 앞에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시가 고양되었습니다. 그것은 쌍곡선입니다. 과장됐어요.

이 강력한 분 앞에서 온 땅이 가만히 서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앞에서 고대 산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분의 길은 영원합니다.

여기에는 아마도 홍해를 건너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당신이 말과 승리의 병거를 몰고 바다를 향해 분노하셨습니까? 당신은 활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많은 화살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신은 강들로 땅을 나누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은 용사이십니다. 모세의 노래.

홍해의 미리암. 주의 날아가는 화살의 광채와 주의 번쩍이는 창이 번개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하늘에 머물렀나이다 주께서 진노하심으로 땅을 밟으시고 진노하심으로 열국을 타작하셨나이다.

당신의 백성, 구세주, 기름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셨나이다. 기름부음받은 자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주제를 선지자들에게서 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그분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언어는 파라오를 강하게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역사입니다. 이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당신은 악의 땅의 우두머리를 쳐부수셨습니다. 당신은 그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벗기시어 이집트 사람들을 멸망시키셨습니다. 그의 전사들이 우리를 흠어버리려고 달려올 때에 당신께서는 당신의 창으로 그의 머리를 찌르셨으며, 숨어 있는 가련한 자들을 삼키려는 듯 흡족해하셨습니다.

당신은 말을 타고 바다를 짓밟으시고 큰 물을 휘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의 암시는 홍해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으로 오신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그분은 마치 전사처럼 그들을 보존하고 구원하기 위해 생명보다 더 큰 존재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활동에 대해 교회가 사용하는 용어인 마그날리아의 리허설, 리허설된 큰 일들, 마그날리아가 전해진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옛 사역을 회상하는 최고의 찬송가에 패턴이 있다면 우리는 연습하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에 대한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결론은 16b절부터 끝까지입니다. 그는 재난의 날을 참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2:3과 연결됩니다. 느리더라도 기다려 보세요. 그것은 반드시 올 것이며 지체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있습니다. 좋아요,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무너뜨릴 때, 우리를 침략하는 나라에 재난의 날이 오기를 저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짧은 표현은 아마도 아시다시피 바빌론이 586년에 최종적으로 전복되기 전에 약 10년에 걸쳐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투입하여 세 번의 주요 공격을 가했다는 사실을 암시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미 침략이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예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무화과나무가 꽃이 피지 않고, 싹이 나지 않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곡식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본 것처럼 우리의 세 농업인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말합니다. 호세아. 포도주와 기름과 곡식입니다.

성경경제학의 세 가지 주요 요소. 그래서 그는 이것이 농업 재앙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또한 축산업도 실패합니다.

우리 안에는 양이 없습니다. 마구간에는 소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어려울 때 이런 일들을 묵상했던 배경이 아닐까요? 그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자시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합니다. 주 여호와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래야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이 닥칠지 대처할 수 있게 해주는 내부 에무나 입니다. 그분은 내 발이 산양이나 수사슴이나 사슴의 발처럼 높이 닿게 하십니다.

짧은 발의 자신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것이 나의 마지막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관계는 이성보다 우선합니다.

성경이 항상 최종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주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다. 그것은 관계를 주고, 그 관계는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맺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최악의 시기에든 그는 그 책의 신정론에 나오는 옴처럼 주님을 굳건히 붙잡을 것입니다. 수요일 수업 시간에는 쿠슈너의 책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그러니 수요일까지 쿠슈너의 책을 꼭 읽어보세요.

원하시면 책을 수업에 가져오세요. 쿠슈너에 대한 당신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책에 대해 좋은 토론을 하고 싶고, 여러분의 반응도 듣고, 이에 대한 제 생각도 몇 가지 공유하겠습니다.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그리고 현대 세계에서 같은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어디로 나올 예정입니까? 좋아요, 그거면 됩니다.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Marv Wilson입니다. 하박국서 21장입니다.